

■ 저축銀 사태 여파 임건우 전 회장 구속, 향토기업 보해양조 운명은?

몇 인남은 우량 향토기업 경영권 '흔들'

경남 지역기업 '케이프' 지분 9.87%까지 확보 최대 단일주주 부상... 인수 합병 시도 '관심'

보해저축은행 사태로 임건우(64) 보해양조 전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경남 기업 케이프가 사업다각화를 위해 보해양조의 경영권 참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해양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케이프와 보해양조 등에 따르면 케이프는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난 7월 14일 보해양조 지분 7.87%(19만8220주)를 취득 한 뒤 8월 3일 1%지분을 추가 매입해 총 8.87%(22만3470주)를 확보했다. 케이프는 지난 8일에도 보해양조 주식 2만5200주를 더 사들여 지분율을 9.87%까지 끌어 오니 일가 외에 단일주주로는 가장 높은 지분율을 확보했다. 이전까

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억원 을 계열사인 창해에탄올을 대상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보해양조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케이프는 오는 12일 보해양조 목포 시 본사에서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최근 BW 발행이 보해양조 정관을 위해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보해양조는 임 전 회장이 구속돼 불똥이 튀어 유동성 위기 등 창사 이후 최대 시련에 직면해 있다. 구속된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며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증자를 위해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했던 보해양조는 그 여파로 갈수록 금융권 채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등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실제 보해는 공장의 생산직 직원을 제외한 관리직 직원들의 월급을 두달치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양조 자체 문제가 아닌 저축은행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이라며 "영업이나 회사경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단지 금융 부문 동성이 문제여서 조만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케이프가 현재 지분율이 10%에 육박하지만 모두 최근 매입한 것으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실제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은 3%에 그친다"며 "의결권 주식이 미미해 케이프의 제안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임건우 회장과 특수 관계인 지분율도 37.66%로 경영권 방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재호기자 ion@kwangju.co.kr



"원금 보상하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종합질의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원금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이 없는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종합질의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빅4'에 광주·전남출신 증용될까

■ 검찰 고위급 인사 대대적 물갈이 촉각

중수부장 지역 안배엔 김현웅 춘천지검장 유리

고검장 후보에 이재원·소병철·주철현 등 거론

법무부장·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내정자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3기 고검장들이 대거 사퇴해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급 인사는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에서도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이상 5자리는 물론 후속 인사를 통해 지검·지청 부장검사들도 대부분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빅4' 한배 관심> 이번 검찰 인사의 주요 관심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 등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주요 보직 내 자리의 한배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둘러싼 경쟁은 연수원 15기 최효일 검찰국장 겸 김홍일 중수부장, '14.5기' 신중대 공안부장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수부장에는 16기 이득홍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수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현웅 춘천지검장도 물망에 오른다. 이 차장과 김 국장은 'TK' 출신

인 반면 고흥 출신인 김 검사장은 호남 출신이어서 지역안배 차원이라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국장은 김수남 검사장과 함께 동기인 정병두 대검 공안총무부장이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국민수 청주지검장과 동기인 박정수 울산지검장이 거론된다. <고검장 승진도 '대폭' 전망> 고검장 자리는 13기의 용퇴로 14~15기가 채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한 내정자와 경합을 벌인 차동민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조근호 법무연수원장, 황교안 부산고검장, 박용석 대검 차장이 잇달아 퇴임한 데 이어 황희철 법무부 차관까지 곧 물러날 예정이어서 9명의 고검장 가운데 13기 6명이 전원 교체된다. 고검장 9개 자리는 14기 5명, 15기 4명 구도로 정리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고검장 승진 대상인 14기 검사장은 광주 출신 이재원 서울동부지검장과 과상욱 부산지검장, 김영한 수원지검장, 김진태 대구지검장, 김학의 인천지검장 등 5명이다. 15기 검

사장 중에는 신중대 공안부장 겸 김홍일 중수부장, 최효일 검찰국장, 송해은 서울서부지검장 직무대리, 길대기 서울남부지검장, 이창세 서울북부지검장, 김병희 의정부지검장,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을 비롯, 순천 출신인 소병철 대전지검장과 여수 출신인 주철현 창원지검장, 성영훈 광주지검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사장 승진 11명> 이번 대규모 인사에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는 최대 11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18기 가운데 광주 출신인 문무일 대검 선임연구관과 전북 남원 출신인 오광수 안산지청장을 비롯한 강찬기인 박정수 울산지검장이 거론된다. <고검장 승진도 '대폭' 전망> 고검장 자리는 13기의 용퇴로 14~15기가 채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한 내정자와 경합을 벌인 차동민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조근호 법무연수원장, 황교안 부산고검장, 박용석 대검 차장이 잇달아 퇴임한 데 이어 황희철 법무부 차관까지 곧 물러날 예정이어서 9명의 고검장 가운데 13기 6명이 전원 교체된다. 고검장 9개 자리는 14기 5명, 15기 4명 구도로 정리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고검장 승진 대상인 14기 검사장은 광주 출신 이재원 서울동부지검장과 과상욱 부산지검장, 김영한 수원지검장, 김진태 대구지검장, 김학의 인천지검장 등 5명이다. 15기 검

이귀남 법무 퇴임

제61대 법무부 수장에 올라 2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던 이귀남(60·12기) 장관이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이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정들었던 집무실을 떠났다. 장흥 출신인 이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불법 시위와 파업이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줄어 범죄질서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퇴임사에서 "국민의 의식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서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저축銀 피해자 구제' 정부·정치권 충돌

박재완 장관 "국민 성금의 대안 없다"

여야 "국민에 떠넘기기... 뻔뻔스럽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 금액도 상당 부분 지급하는 국회의 구제 대책이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간극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특위는 10일 국회 본청에

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질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일부 과실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은 금융 관료들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Europe, Asia, and other regions. It includes prices for various tou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gency.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Europe, Asia, and other regions. It includes prices for various tou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gency.